스위스 도심지를 빛나게 하는 숨은 보석들.

스위스 도심지는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볼거리도 많지만, 로컬들에게 더 인기많은 곳들도 곳곳에 숨어있다. 스위스 그랜드 투어를 통해 차량으로 스위스의 곳곳에 숨겨진 보석들을 만나며 여정을 이어왔다면, 스위스 도심지에 도착해서도 같은 마음과 자세로 여행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 여정의 목적은 유명한 목적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정 자체에서 만나는 다양한 풍경과 문화,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취리히(Zürich).

매력넘치는 구시가지(Old Town).

취리히카드(ZürichCARD)를 한 장 구매하자. 취리히 시내의 모든 교통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곳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지인들이 "작은 마을"이라는 뜻의 "되르플리(Dörfli)"라 부르는 니더도르프(Niederdorf) 구역의 구시가지는 작은 부띠끄와 고서점, 공방, 바, 카페로 빼곡하다. 차량 진입이 금지된 이 곳에서는 낮에는 물론 밤에도 굽이굽이 이어진 골목길을 거닐기 좋다.

취리히의 탑 디쉬(top dish).

취리히를 찾았다면 취리히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취르허 게슈네첼테스(Zürcher Geschnetzeltes)를 꼭 먹어줘야 한다. 크림 소스와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가 어우러진 요리로, 스위스식 감자전인 뢰슈티(Rösti)가 곁들여 진다. 취리히에서 가장 맛있는 게슈네첼테스로 소문난 곳은 1315 년부터 길드하우스로 사용되던 건물에 자리한 춘프트하우스 쥐르 바아그(Zunfthaus zur Waag)로, 이 곳의 화려한 길드홀과 패널 장식이 돋보이는 공간에서 정통 게슈네첼테스를 맛볼 수 있다. 그릴한 양젖 치즈와 속을 채운 호박꽃 요리와 같이 특별한 채식 메뉴도 인기다.

식물원에서 만나는 또 다른 세계.

제펠드(Seefeld) 구역에 있는 식물원은 취리히 심장부에 자리한 오아시스로, 다채로운 색감의 꽃밭과 널찍한 잔디밭, 작은 호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세 개의 UFO 가 착륙한 모양의 건물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세 개의 미래지향적인 돔에서는 다른 세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풍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막, 산악, 우림 지역 등 먼 곳의 기후를 고스란히 체험해 볼 수 있다.

물 위에서 바라다본 도시.

햇살이 반짝이며 부서지고, 물방울이 흩날리고, 산뜻한 공기의 내음이 충만한 체험에 나서보자. 리마트(Limmat) 강의 보트 크루즈로,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시간이 되어준다. 보트 투어는 취리히 호수에 있는 세 선착장을 지나 스위스 국립 박물관(Swiss National Museum)까지 그 여정을 이어 나간다.

스위스의 역사.

취리히 중앙역 옆에는 1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동화속에 등장할 법한 모습의 고성이 있다. 바로, 스위스 국립 박물관(Swiss National Museum)이다. "스위스의 역사(Story of Switzerland)"라는 제목의 상설전시를 비롯해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다. 박물관 뒤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취리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중 하나로 꼽힌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프라우 게롤츠 가르텐(Frau Gerolds Garten).
"제롤드 부인의 정원"이라는 뜻의 공원으로, 취리히 서부의 프라임 타워(Prime Tower)와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올려 만든 프라이탁(Freitag) 건물 사이에 있는 철도를 따라 만들어진 공원이다. 이 공간은 2012 년 여름 몇 주만에 작은 숍들과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매력적인 레스토랑이 들어선 도심지 정원으로 변신했다. 현재 이 예술적이고 활력 넘치는 공간은 취리히 서부의 중심지인 하드브뤼케(Hardbrücke) 구역에서 가장 인기있는 만남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베지테리언 파티.
취리히에서 가장 오래된 채식주의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열정적인 롤프 힐틀(Rolf Hiltl) 씨는 지난 7 년 동안 주말마다 파티 피플들에게 레스토랑을 오픈해왔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 11 시가 되면 힐틀 레스토랑은 흥에 겨운 댄서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칵테일이 흐르고, 국내외 DJ 들이 RnB, 딥하우스, 다른 비트가 강렬한 음악을 선보이며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전세계 베스트 비르허뮈슬리(Birchermüesli).
취리히에서 놓칠 수 없는 먹거리 중 하나가 바로, 비르허뮈슬리다. 파라데플라츠(Paradeplatz) 광장에 있는 슈프륑글리(Confectioner's Sprüngli)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뮈슬리를 맛 볼 수 있다. 2011 년에 175 주년을 맞은 스위스 정통 초컬릿 숍으로,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하우스로 꼽히고 있다. 분주한 1 층이나, 전통적인 인테리어가 품위있는 윗층에 자리를 잡고 전설적인 비르허뮈슬리를 주문해 보자. 슈프륑글리의 인기 품목인 룩셈부르겔리(Luxemburgerli) 마카롱 두어개도 함께 맛 보도록 한다.

파노라마가 있는 고요의 오아시스.
역사적인 언덕, 린덴호프(Lindenhof)에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취리히 한 가운데 이렇게 고요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하다. 리마트(Limmat) 강둑 위 나무 그늘이 서늘한 광장에서 지붕이 가득한 취리히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종소리가 그윽한 교회와 로맨틱한 구시가지, 아름다운 호숫가, 그리고 저 너머 알프스의 파노라마까지 펼쳐진다. 린덴호프 아래로는 리마트 강을 따라 취리히의 가장 오래된 구시가지 중 하나이자 그림같은 쉽페(Schipfe) 구역이 나온다. 역사깊은 워크숍과 작은 부띠끄들이 가득하다.

먼나라 문화와 예술.
리트베르그(Rietberg) 박물관은 스위스에서 유일한 비유럽권 예술을 다루는 박물관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다양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전 세계의 예술적인 표현이 놀라울만큼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나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먼 문화와 종교, 세계의 다른 관점에 대해 뛰어난 통찰력을 접할 수 있다. 문화를 발견하는 스릴 넘치는 여정을 기대해도 좋다.

스타일리쉬한 쇼핑.
럭셔리 브랜드가 가득한 반호프슈트라쎄(Bahnhofstrasse)부터 매력이 넘치는 니더도르프(Niederdorf)까지 취리히는 쇼핑으로 유명하다. 반면, 취리히 웨스트(Zurich West)는 새롭고 힙한 로컬 레이블을 찾아 나서기 좋은 곳이다. 철도 고가 아치를 개조해 만든 쇼핑몰에서는 다양하고 매력 넘치는 아이템을 찾아볼 수 있다. 아치의 마켓 홀에서는 신선한 제품들과 전 지역의 미식 특산품도 구입할 수 있다. 바로 근처에 재활용 트럭 방수천을 활용해 만든 가방으로 유명한 프라이탁(Freitag)의 플래그쉽 스토어가 있다. 컨테이너를 쌓아올려 만든 타워 형태의 건물이 인상적이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취리히의 가장 높은 전망대.
프라임 타워(Prime Tower)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반짝이는 유리 구조물이 패셔너블한 취리히 서부 지역에 126m 높이로 솟아나 있다. 35 층에는 클라우즈(Clouds) 레스토랑이 있는데, 디너나 드링크를 즐기기 좋다. 취리히 도심과 호수, 산의 풍경이 펼쳐지는 기막힌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다다(Dada) 카페.
휴고 발(Hugo Ball)과 한스 아르프(Hans Arp)가 이끈 아티스트 그룹이 니더도르프(Niederdorf) 구역 한 가운데에 캬바레 볼테르(Cabaret Voltaire)를 설립한지 정확히 99 년이 되었다. 이 곳은 바로 다다운동이 탄생한 곳이다. 2004 년 재오픈된 이래 다다이즘의 원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훨씬 쉽고 재미있는 형식으로 다다이즘에 접근하며 낭독, 전시를 비롯해 흥미로운 숍과 훌륭한 바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책, 침대, 그리고 목욕.
옛 휘를리만(Hürlimann) 양조장의 외관 뒤에는 부띠끄 호텔 B2 가 자리해 있는데, 60 개의 모던한 룸과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다. 이 곳에는 3 만 3 천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는 훌륭한 서재가 있는데 눈을 돌리기 힘든 곳이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하룻밤의 달콤한 밤을 보내기 좋은 곳이다. 밤새 책을 읽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 다음날 옥상에 자리한 노천 스파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취리히의 뒷동산.
화려한 쇼핑과 다채로운 문화, 기막힌 나이트라이프 외에도 취리히 도심의 문턱에는 녹색 자연이 펼쳐져 있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기차를 타고 위에틀리베르그(Üetliberg)에 올라보자. 도시 중심에서 단 20 분만에 산 정상에 도착하게 된다. 하이킹이나 바이킹은 물론 도심과 호수, 알프스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즐기기에도 좋다.

탑 테이블.
취리히의 뒷동산인 위에틀리베르그(Üetliberg)가 선사하는 풍경이 마음에 든다면 이 곳에서 조금 더 머물러 보는 것은 어떨까? 우토 쿨름 호텔(Uto Kulm hotel)에는 추억에 남을만한 런치나 디너를 즐기기 좋은 스타일리쉬한 파노라마 레스토랑이 있다.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와 미식 세트 메뉴, 품질 좋은 와인과 함께 취리히 도심과 호수, 산의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 곳에서의 식사는 모든 감각을 충만케 해 줄 것이다.

취리히의 야생 고원.
취리히의 문턱에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다. 수세기 동안 질발트(Sihlwald) 숲의 나무들은 목재로 벌목되어 왔으나, 2000 년부터 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초록의 그림같은 숲에서는 산림욕을 즐기며 걸어볼 수 있다. 근처의 랑겐베르그(Langenberg) 야생 공원에서는 스릴 넘치는 가족 소풍을 즐길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루체른(Luzern).

오감의 즐거움.

루체른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장 누벨(Jean Nouvel)의 건축물, 카카엘(KKL)이다. 루체른 호수 위에 둥실 떠 있는 듯한 지붕이 인상적이다. 어쿠스틱 효과가 훌륭한 콘서트 홀로 유명하기도 하다. 카카엘 안에는 루체른 시립 미술관도 있다. 루프 테라스에서는 루체른 구시가지와 호수, 호수 위 유람선의 풍경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호반.

1850 년 경 루체른은 인상적인 새 호반을 만들었다. 그 호반을 따라 호텔이 늘어서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되었다. 바로 티볼리(Tivoli), 슈바이처호프(Schweizerhof), 나쇼날(National), 팔라스(Palace) 호텔이다. 기차역에서 넓찍하게 가로수가 형성되어 있는 호반을 따라 제부르그 호텔(Hotel Seeburg)까지 거닐다 보면 루체른 호수와 그 너머로 펼쳐진 알프스 봉우리가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뮤제엄 핫스팟.

스위스 교통 박물관(Swiss Museum of Transport)은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박물관으로, 직접 찾아가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재미있는 전시로 가득한데, 오래된 트램 탑승부터 달까지 날아가거나 사파리로 가는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더해진 하이라이트는 멀티 미디어로 이루어진 스위스 초컬릿 어드벤쳐다.

스페인의 맛.

빠에야, 화히타, 타파스. 이 세 가지만으로도 군침이 돈다면 볼레로(Bolero) 레스토랑 & 라운지를 찾아보자. 카스카다(Cascada) 호텔에 자리해 있다. 하이라이트 메뉴 중에는 오후 5 시부터 매일 신선하게 준비되는 미식 타파스가 있다. 와인 한 잔으로 시작해 여러 잔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요리로 가득하다. 호텔이 최근 레노베이션한 폭포 테마의 룸은 특별한 숙박 체험을 선사해 준다.

무제크 성곽(Musegg Wall).

13 세기경 루체른 주변에 세워진 유구한 역사의 요새 일부로, 9 개의 탑이 있다. 대부분이 잘 보존되어 있다. 무제크 타워 중 세 개는 일반에 공개가 되고 있다. 그 중 치투름(Zytturm)이 찾아볼만 한데, 이 곳에 루체른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가 있기 때문이다. 루체른 시내의 모든 시계가 정각을 울리기 1 분 전에 먼저 시간을 알리는 특권을 가진 시계라 더욱 특별하다.

향수를 자극하는 곳.

제바드 리도(Seebad Lido)는 100 년이 넘도록 사랑받는 곳 중 하나다. 호숫가 산책로에 자리한 우아한 목조 구조물로, 수차례나 레노베이션 되어 현재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원형이 갖고 있던 매력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저녁이면 제바드는 분위기 좋은 호숫가 바로 변신하는데, 루체른 젊은이들에게 인기많은 만남의 장소다.

역사로 가득한 호텔.

19 세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전깃불에 열광했고,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는 옆방 투숙객들이 항의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에 넘쳐 작곡을 했던 곳이다. 비비킹(B.B. King)은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프라이빗 콘서트를 위해 그의 기타를 꺼내들기도 했다. 바로, 슈바이처호프(Schweizerhof) 호텔로, 끝을 모를 이야기 거리로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101 개의 새롭게 레노베이션된 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캐릭터 강한 호텔도 찾아보기 힘들다.

호반의 엔터테인먼트.
유럽에서 가장 긴 호반 산책로에 자리한 그랜드 카지노 루체른(Grand Casino Luzern)은 어메리칸 룰렛, 블랙잭, 포커, 미니 바카라를 포함한 13 개의 게임 테이블을 갖춘 스타일리쉬한 카지노로, 250 대가 넘는 슬롯 머신과 라이브 쇼, 훌륭한 레스토랑 메뉴를 갖추고 있다. 네오 바로크 양식의 보석같은 아름다운 빌딩은 스타일리쉬한 공간으로 가득한데, 밤 11 시부터 오픈하는 특별한 클럽 나잇을 여는 카시네움(Casineum)이 멋지다.

스타일리쉬한 맛과 밤.
밖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놀랍게 안락한 호텔 발트슈태터호프(Waldstätterhof)는 보석같은 호텔이다. 루체른 기차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쉬해 비즈니스 및 여행을 위한 숙박에 적격이다. 이 곳에서 굳이 숙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호텔의 레스토랑 호프(Restaurant Hof)에서는 채식주의 메뉴와 글루텐 프리 메뉴 등 특별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피카소의 두 번째 집.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젠가르트 컬렉션(Rosengart Collection)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파울 클레(Paul Klee)를 비롯한 세계적인 거장 20 여명의 중요한 작품으로 가득하다. 인상주의부터 클래식 모던주의까지의 작품에 집중한다. 예술 애호가라면 반드시 들러보아야 하는 박물관으로 유명한데, 루체른 시에서도 중요한 보물로 여겨지고 있다. 전 세계의 여행자들에게 문화적인 영감을 선사해 주고 있다.

부르바키(Bourbaki)의 신비.
에두아르 카스트르(Edouard Castres)가 그린 파노라마를 만나볼 수 있는 부르바키 박물관(Bourbaki Museum)은 1870 년에서 1871 년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 부르바키 병대의 87,000 명의 군인이 생포되었던 장면을 보여준다. 파노라마의 한 가운데에는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어 뉴샤텔(Neuchâtel)의 발 드 트라베르(Val de Travers) 계곡에 자리한 레 베리에르(Les Verrières) 마을의 눈 덮인 겨울 풍경을 실감나게 보여 준다. 특히 음향효과를 이용해 실제로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듯한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된다.

가슴 저리게 만드는 사자.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 감동적인 바위"라 부른 루체른 한 가운데에 자리한 죽어가는 사자 조각은 매년 50 만명이 찾아드는 볼거리다. 연못 위로 솟아오른 절벽 안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비 중 하나다. 1792 년 파리의 튈르리(Tuileries) 궁전 습격 당시 희생된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 졌다.

바로크 보석.
로이스(Reuss) 강둑에 자리한 인상적인 모양의 예수회 교회(Jesuit Church)는 1677 년에 세워진 바로크 양식의 교회로, 이런 양식의 교회는 스위스 전역에서 유일하다. 스위스에도 다른 많은 바로크 양식의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이 곳의 어쿠스틱 효과 때문이다. 때문에 루체른 음악 학교(Lucerne School of Music) 학생들에게 완벽한 콘서트 및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통 이탈리안.
지중해 분위기와 스위스의 농장 분위기가 섞여 매력적인 레스토랑 그로띠노(Grottino) 1313 을 찾아보자. 오붓한 분위기와 독특한 디테일, 아름다운 정원이 만나 수 년째 루체른의 숨은 보석같은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의 훌륭한 정통 이탈리안 메뉴와 따뜻한 서비스, 여유로운 분위기로 단골들에게 칭찬이 마르지 않는다.

고요한 호수.
루체른 외곽의 좁다란 로트제(Rotsee) 호수는 언덕으로 둘러 쌓여 있다. 호수의 표면은 거울같이 보드랍다. 고요한 산책로가 호숫가를 따라 이어지고, 호수를 액자처럼 둘러싸고 있는 갈대밭과 습지는 다양한 식물과 생물의 서식지가 되어주고 있다. 루체른 주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 공원 중 하나다.

산들의 여왕.
알프스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점심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역사적인 톱니바퀴 열차나 파노라마 케이블카를 타고 리기(Rigi) 산으로 올라가는 것부터 인상적인 여정이 시작된다. 산 정상에서는 알프스의 봉우리들과 13 개의 호수가 펼쳐지는 짜릿한 풍경이 압도적이다. 리기 쿨름 레스토랑(Rigi-Kulm Restaurant)의 아름다운 아르누보 양식의 공간에서 여유로운 점심을 즐기기 좋다.

보장된 스릴.
해발고도 3,041m 상공에 놓인 티틀리스 클리프 웍(Titlis Cliff Walk) 아래로는 500m 의 낭떠러지가 까마득하다. 스릴 넘치는 150 개의 계단을 지나야 하는데, 높은 고도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질 정도다. 엥겔베르그(Engelberg)를 내려다 보는 빙하산, 티틀리스 정상 근처에 위치해 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서스펜션 다리로, 강심장을 가진 이들만 올라볼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